

# 문학의 오늘

2012년 가을호

비평 특집

『문학의 오늘』이 주목하는 작가들

김애란

김사과

박형서

기획 논단

2012 대선 진단

안철수

박근혜

한·일 두 거장의 만남

어딘지 서로 닮은 두 노 시인의 대화

신경필

다니카와 슬타로



소설 실상대, 박금산, 구병모

시 신경필 외 15인 32편

인터뷰 박재영, 도종환, 조정환, 백학기

새자료 새발굴 박연환 明澤 신송이 되기까지(曉月이 가면)

임화의 일문 평론 수필 대공개

이작품 이렇게 썼다 조현용 「햇별 아래 춤추는 납작거북이」

예술의 현장 무대 위에 오른 여성시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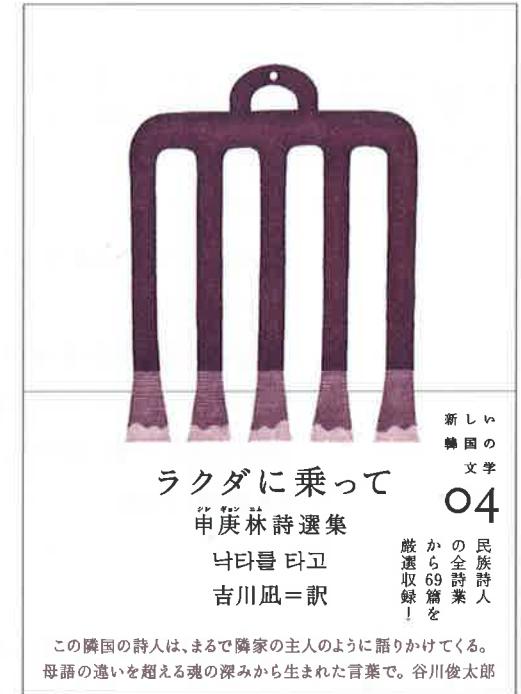


값 15,000원

9 772234 472106  
ISSN 2234-4721

# 어딘지 서로 닮은 두 노 시인의 대화

신경림·다니카와 슌타로, 한·일 시인 대담 및 낭독회



지난 5월, 신경림 시인의 일본어판 시선집『ラクダに乗って(낙타를 타고)』(쿠온, 요시카와 나기 옮김)가 간행되었다.『농무』(1975)에서부터『낙타』(2008)에 이르는 시집에서 69편을 필자가 골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시집을 내게 된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시선집이 일본에서도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진심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인과 오랜 친분을 나눠 온 필자가 스승에게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마음으로 시집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르겠다. 이 시집에 대해, 재일 한국인을 위한 신문『통일일보』의 일본인 여성기자 마쓰무라 마키코(松村牧子) 씨는 자신은 시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첫 번째 작품『겨울밤』을 보자마자 사로잡혔다 (...) 1935년생 남성 시인의 작품에 내가 공감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는 서평을 썼다.(2012년 6월 20일자)

출판 기념행사로 쿠온의 김승복 사장은 신경림 시인과 일본의 원로시인 다니카와 슌타로 씨와의 대담을 제안했고 나도 찬성했다. 두 거장에게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다. 김 사장도 나도 막연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도쿄 스이도바시(水道橋)에 있는 한국YMCA에서 200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다니카와 두 거장의 대담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첫 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연령도 체격도 비슷한 두 시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도쿄에서 유명한 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다니카와 시인과 시골에서 태어나 농민이나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이름난 신경림 시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은 대담의 기록을 보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 사회/요시카와 나기 통역/김훈아

# 먼저 상대방의 작품을 읽은 감상부터……

**신** 저는 두 번 결혼했지만 첫 번째 아내는 병으로 죽고 두 번째는 헤어져서 지금은 혼자 삽니다.

**다니카와** 저는 결혼에 세 번 실패해서 역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웃음)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니카와** 저도요.

## 3·11 대지진 때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이틀 후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방도 쓰나미가 덮쳤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명함에 있던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안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동네가 다 망한 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다니카와** 저는 신주쿠(新宿)의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7층에 올라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어떤 호흡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연습 방법의 하나로 흔들흔들하는 판자 위에 올라서서 밸런스를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바닥이 흔들리는 데에 맞추어서 기분 좋게 몸을 움직여서 밸런스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원이 “빨리 엎드리세요” 하고 야단치니까 엎드렸지요. 큰 지진이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아직 원전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신 저는 지진 직전에 일본에 있었다는 인연도 있어 시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도 썼고 의연금도 냈어요.

**다니카와** 시집에 수록된 에세이에는 등단 직후 시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시집『나타』

**신** 다니카와 선생의 폭넓은 시세계에 감동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다니카와** 저는 신 선생 작품에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에 뿌리를 내린 시를 쓴다는 점에서 저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나요?

말미에 수록된 산문 <나는 왜 시를 쓰는가>으로, 일본어판 시선집에도 수록되었다) 고 쓰셨는데 대지진 때도 회의를 느끼셨나요?

**신** 시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절망감이 있는 한편 역시 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에 대한 회의보다 신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다니카와** 지진이나 쓰나미는 옛날부터 일본에 있었던 재해라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만 원전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였는데 처음에는 서정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현실은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사회에서 문학이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의를 느꼈지요.

**다니카와**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직후입니다. 저는 아직 어렸지만 공습으로 불탄 자리에서 많은 시체를 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도 언어의 불완전함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느낀 것의 10퍼센트도 말로 표현 못한다고. 저는 시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직업으로 시를 써서 돈을 벌면서 시를 사회에서 인정받게 만들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를 쓰려고 하면 애지테이션(agitation, 선동)처럼 되어버리지요. 시는 말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도움이 되는 작품이 아니라 언어의 맛을 보여주는 작품, 맛있는 음식 같은 작품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싶었어요. 대지진 때도 내 시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지진을 주제로 시를 쓰려는 마음은 별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의연금을 내는 것으로 협력했지요. 하지만 잡지에 매달 한 편씩 시를 연재했었으니 그때 쓴 작품에는 지진의 영향이 확실히 보입니다.

다니카와 씨는 “내 시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대지진을 주제로 한 작품도 별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3·11 지진 후에 어떤 배우가 다니카와의 시 「살다(生きる)」를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계기로 몇십 년 전에 쓴 이 시가 다시 각광을 받아 여러 곳에서 낭독되기도 하고 이 시를 흉내낸 시를 쓰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다니카와의 작품은 시인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확실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살다」는 이렇게 시작된다.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에서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그대와 손을 맞잡는 것……”

## 시인의 사회적 역할이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신** 한국에서는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고 국내에서는 지배 계급의 착취를 당해온 한국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니카와**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좌의 시인들은 시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본시의 전통과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부터 일본 시인들은 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왔습니다. 단카(短歌 5·7·5·7·7의 5구 31음절로 된 정형시), 하이쿠(俳句, 5·7·5의 3구 17음절로 된 정형시)도 마찬가지예요.

한시(漢詩)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단카나 하이쿠는 기본적으로 풍경이나 정서를 노래하는 시였고 연애 감정을 전하기 위해 단카를 짓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와는 확실히 격차가 있을 거예요.

**신** 한국에서도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면 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몽적인 시가 유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작품의 생명은 짧았어요. 독자는 사회적, 역사적 행동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술적인 완성도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카와** 한국에서 시집이 많이 팔린 게 언제죠?



**신** 한국에서는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고 국내에서는 지배 계급의 착취를 당해온 한국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니카와**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좌의 시인들은 시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본시의 전통과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부터 일본 시인들은 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왔습니다. 단카(短歌 5·7·5·7·7의 5구 31음절로 된 정형시), 하이쿠(俳句, 5·7·5의 3구 17음절로 된 정형시)도 마찬가지예요.

한시(漢詩)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단카나 하이쿠는 기본적으로 풍경이나 정서를 노래하는 시였고 연애 감정을 전하기 위해 단카를 짓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와는 확실히 격차가 있을 거예요.

**신** 한국에서도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면 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몽적인 시가 유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작품의 생명은 짧았어요. 독자는 사회적, 역사적 행동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술적인 완성도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카와** 한국에서 시집이 많이 팔린 게 언제죠?

**신**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독재정권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던 독자들이 시에서 숨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집이 많이 나갔어요.

**다니카와** 검열은 어땠습니까?

**신**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어 제 첫 시집『농무』는 실제로 몇 판 찍었는지 몰라요. 납품하면 다시 검열을 받아야 하니까 판을 거듭해도 '초판'으로 팔았으니까요.

**다니카와** 검열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애매한 표현이나 비유 같은 것도 사용했나요?

**신** 했었죠. 검열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유나 상징적인 말을 쓰는 등 여러 가지 기법을 궁리했으니 검열이 시의 수준을 올렸다고도 볼 수 있지요. (웃음)

**다니카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 검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되고 검열이 없어지자 오히려 시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70년대가 그립다는 시인도 있어요. (웃음)

**다니카와**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소련 때는 시 낭독회에 몇 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러시아가 된 후에는 시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 한국에서도 70년대에는 낭독회에 몇 배 명, 많을 때는 천 명 이상 왔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와요.

한국에서는 시인이  
지식인으로 대접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신** 시집은 안 팔려도 시인에 대한 존경심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양에 갔을 때는 저도 따라갔어요. 오로지 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멤버로 선출된 거였어요.

**다니카와**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신** 한국에서는 정치가를 욕할 때 그 사람은 시 한 줄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욕이에요.

**다니카와** 한국의 정치가들은 실제로 현대사를 읽을까요?

**신** 많은 정치가들이 시집을 봅니다.

**다니카와** 일본에서는 정치가들이 죽을 때 남기는 말 같은 것도 단카나 하이쿠로 씁니다.

**신** 한국에서는 선거운동할 때 시집을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카와** 좋겠네요. 제 시집도 나누어주었으면.(웃음) 일본에서는 시인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저도 매스미디어에서는 대개 '시인'이라기보다 '문화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신** 한국에서는 '문화인'보다 '시인'이 더 힘이 있어요.

**다니카와** 일본에서는 시가 TV광고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현대시가 차차 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팝스의 노랫말이나 연속 드라마 같은 것에 포에지를 느끼면서 시를 안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여할 때도 있고 TV광고에 시가 쓰이기도 합니다.

**다니카와** 그림이나 사진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콜라보레이션도 해요?

**신** 많이 합니다.

**다니카와** 일본 시인보다 한국 시인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닐까요?

**신** 시인한테 주는 문학상이 많고 금액도 큅니다. 2억 원 주는 문학상도 있어요.

**다니카와** 상금은 누가 내죠?

**신** 기업이 만든 문학재단입니다.

**신** 일본 시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카와** 대학교수도 많지만 제 친구는 민예품 가게를 경영해요.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신 선생,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신** 사 먹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다니카와** 등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신** 산을 좋아합니다. 내년쯤 또 히말라야에 가려고요.

예전에 일행 12명으로  
히말라야에 갔을 때  
짐꾼이 20명이나  
동반했다죠?

**다니카와** 역시 한국 시인들이 부자네요.

# 신경림



신경림 시인

1936년 충북 충주 태생.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 후 1955년에 시단에 입문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10년간 문학적 침묵에 잠겼다. 1973년 발간한 첫 시집 「농무」로 만해문학상을 비롯한 여러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시는 농민의 고달픈 삶을 감싸안는 따뜻한 감동을 자아낸다. 시집으로 「농무」「새재」「새벽을 기다리며」「달님세」「씻김굿」「우리들의 북」「가난한 사랑노래」「남한강」「쓰러진 자의 꿈」「우리들의 북」「저 푸른 자유의 하늘」「갈대」「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목계 장터」「뿔」「낙타」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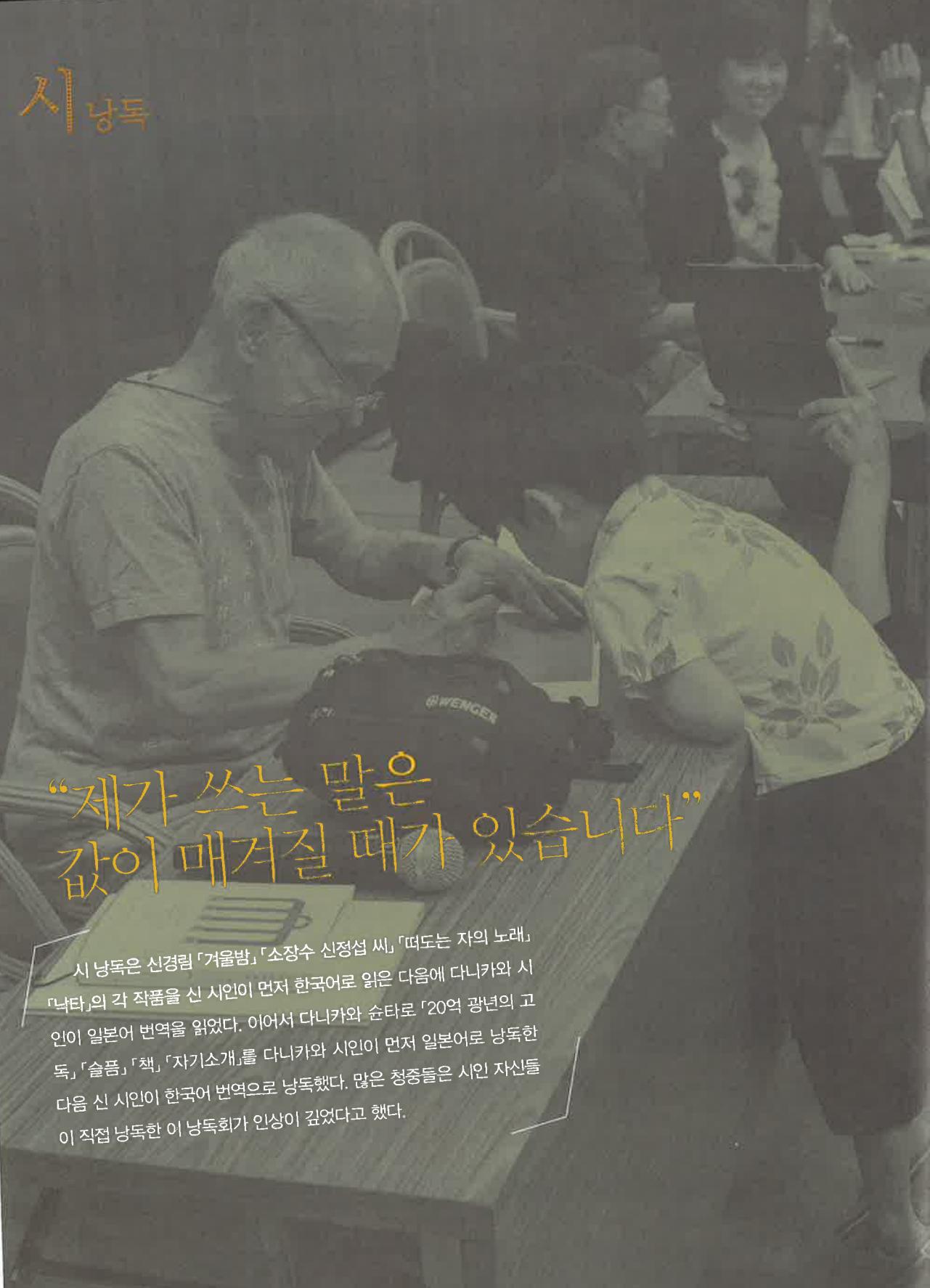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

1931년 도쿄 태생. 아버지 다니카와 데쓰조(谷川徹三)는 호세이(法政)대학 총장을 지낸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슌타로는 학교가 싫어서 대학교도 가지 않았다. 첫 시집 「20억 광년의 고독」(1952)으로 주목을 받은 스무 살 때부터 현재까지 그는 일본 최고의 인기시인으로 글만 써서 살아왔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애독자를 가지고 있는 한편, 시단과는 일정의 거리를 두고 실험적인 작품에 계속 도전하는 고고한 예술가이기도 하다. 수십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고, 그림책 작가 번역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시집으로 「정의(定義)」「코카콜라 레슨」「말놀이 노래」「벌거숭이」「철부지」「나」「어린애들의 유언」등이 있다.

# 다니카와 슌타로

# 시 낭독



제가 쓰는 말은  
값이 매겨질 때가 있습니다

시 낭독은 신경림 「겨울밤」 「소장수 신정섭 씨」 「떠도는 자의 노래」 「낙타」의 각 작품을 신 시인이 먼저 한국어로 읽은 다음에 다니카와 시인이 일본어 번역을 읽었다. 이어서 다니카와 순타로 「20억 광년의 고독」 「슬픔」 「책」 「자기소개」를 다니카와 시인이 먼저 일본어로 낭독한 다음 신 시인이 한국어 번역으로 낭독했다. 많은 청중들은 시인 자신들이 직접 낭독한 이 낭독회가 인상이 깊었다고 했다.

## 겨울밤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목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약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턴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평평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팔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뱉다더라 어떡할 거나  
술에라도 취해볼 거나 술집색시  
싸구려 분냄새라도 맡아볼 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닭이라도 쳐볼 거나  
겨울밤은 길어 묵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세 시비를 하고  
색시 젓갈장단에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러  
보리밭을 질러 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여 쌓여  
자봉을 덮어다오 우리를 파묻어 다오  
오종대 뒤에 치마를 둘러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편지라도 띄워볼 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볼 거나

## 소장수 신정섭 씨

영홍도에서 만난 소장수 신정섭 씨는  
 꼭 세 마디만 가지고 소를 몈다  
 고삐 당겨 이랴 이랴로 끌고  
 딴 곳으로 가려는 소 어여 어여로 막고  
 힘들어 숨차 하면 워워로 세운다  
 소장수 신정섭 씨는 뭐든지 다 안다  
 소 눈만 끔뻑해도 가려운 데 어텐 줄 알고  
 귀만 쫑긋해도 아픈 데 어텐 줄 안다  
 소 몰고 가는 길 어데쯤  
 도랑이 있고 돌이 박힌 것도 훤히 알고  
 길에서 만나는 남의 소 나이며  
 성질까지도 담박 안다  
 그래서 소장수 신정섭 씨는 세 마디만 가지고  
 세상을 몰겠다는 사람들이 밟다  
 백성의 어데가 아프고  
 어데가 가려운 줄도 모르면서  
 이랴 이랴로 끌고 어여 어여로만 다스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밟다 못해 가엾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불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워워로만 막으려는 사람들이  
 가엾다 못해 불쌍하다  
 세 마디만 가지고 세상을 몰려다가  
 물고문 불고문으로 사람을 잡고  
 몽둥이질 발길질로 나라를 잡고  
 마침내 성고문으로 스스로 짐승이 된  
 얼빠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뭐든지 아는 소장수 신정섭 씨는

그 아들딸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한 백 년쯤 소장수를 시키고 싶다  
 여름 겨울 없이 섬을 떠도는  
 한 천 년쯤 소장수를 시키고 싶다  
 단 세 마디로 거꾸로 소한테 끌려다니는  
 순하디 순한 소가 되게 하고 싶다  
 이랴이랴 어여어여 워워 세 마디로 소를 몰면서

## 떠도는 자의 노래

외진 별정 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다  
 어느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  
 눈이 평평 쏟아지는 좁은 골목을 서성이고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잣거리도 기웃댄다  
 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

아니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 저 세상 끝에  
 무엇인가를 나는 놓고 왔는지도 모른다  
 쓸쓸한 나룻가에 누군가를 버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저세상에 가서도 다시 이 세상에  
 버리고 간 것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닐는지도 모른다

## 낙타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 20억 광년의 고독

인류는 작은 공 위에서  
 자고 일어나고 또 일도 하면서  
 간혹가다 화성에 친구를 갖고 싶어 한다

화성인들이 작은 공 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네리리 하고 키르르 하고 하라라 하고 있을지도  
 하지만 가끔 지구에 친구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만유인력은  
 끌고 당기는 고독의 힘이다

우주는 일그러져 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찾는다

우주는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다

20억 광년의 고독에  
 나는 무심코 재채기를 했다

## 슬픔

저 파란 하늘 속 물결소리 들리는 곳에  
뭔가 엄청난 물건을  
내가 빠뜨리고 온 것 같다

투명한 과거의 전철역  
유실물 센터 앞에서  
나는 더욱 슬펐다

## 책

솔직히 말해서  
책은 흰 종이로 있는 게 좋았다  
더 솔직히 말하면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로 있고 싶었다

그러나 벌써 책이 되고 말았으니  
옛날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책은 자신을 읽어보았다  
“솔직히 흰 종이로 있는 게 좋았다”고  
검은 문자로 쓰여 있다

나쁘지 않다고 책은 생각했다  
내 마음을 모두가 읽어준다  
책은 책으로 있다는 게  
조금 기뻤다

## 자기 소개

저는 키 작은 대머리 노인입니다  
벌써 반세기 이상  
명사 동사 조사 형용사 물음표 등  
말들에 시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목수 연장 같은 게 싫지 않습니다  
또 작은 것도 포함해서 나무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것들의 명칭을 외우는 일은 서툴니다  
저는 지나간 날짜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팔뜨기고 난시고 노안입니다  
집에는 불단(佛壇)도 신위(神位)도 없지만  
방 안에 직결되는 커다란 우편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면은 일종의 쾌락입니다  
꿈을 꾸어도 눈만 뜨면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쓴 것은 다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면 웬지 수상하네요  
따로 사는 자식 두 명 손자 손녀 네 명 개나 고양이는 없습니다  
여름은 거의 티셔츠 차림으로 지냅니다  
제가 쓰는 말은 값이 매겨질 때가 있습니다

신 「20억 광년의 고독」이라는 시는 경쾌하지만 근원적인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페이소스가 느껴져요.

다니카와 「떠도는 자의 노래」를 보고 저는 제가 짚을 때 쓴 「슬픔」을 연상했습니다.

신 저도 이웃나라 시인에게 저와 공통되는 발상을 발견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다니카와 「책」은 한자를 안 쓰고 히라가나만으로 쓴 작품인데, 신 선생은 한자를 쓰세요?

신 이전에는 좀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출판사가 싫어해요. 독자가 못 읽는다고.

「책」이라는 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아주 깊어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신 다니카와 선생 낭독을 듣고 일본어도 참 아름답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 저도 이제부터 일본어를 더 공부해서 일본어로 시를 낭독하고 싶어요. 다니카와 선생은 처음 뵈었지만 순진무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시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카와 외국에서 행사에 참가해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시인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신 저도 외국 시인과의 대담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니카와 역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은 책만 보는 것과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오늘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몸조심합시다. 높은 산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 이웃 나라 시인은 마치 이웃집 주인처럼 말을 걸어온다. 모어(母語)의 차이를 넘은 영 훈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언어로.”

이것은 대담을 하기 전에 다니카와 시인이 번역시집만을 보고 써준 추천사였다. 대담에서도 나눈 말이지만, 신경림의 「떠도는 자의 노래」와 다니카와 쿤타로의 「슬픔」은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발상으로 쓰여 있다. 보통 사람은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잃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마저 잊고 산다. 하지만 시인이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뉘우치고 당황하면서 놓고 온 무엇인가를 평생 찾아 해매 야 한다. 두 시인은 그 숙명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신경림 시인은 이다음에 다니카와 씨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으며 나는 한국에서 다니카와 쿤타로 시선집을 내자고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획은 없지만 잘 진행되면 두 거장은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도 그 자리에 입회했으면…….

### | 요시카와 나기(吉川四)

본명은 사나다 히로코.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인하대 국문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도쿄에서 대학강사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등이 있다.